



## 『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안내』

**2023년 6월 28일부터** ‘만 나이 통일법’이 시행됩니다.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,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,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.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.

### ‘만 나이’ 정보링크



올해 생일이  
지나지 않았다면

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- 1 = 현재 나이  
ex. (2023) - (2008) - 1 = 14세

올해 생일부터

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= 현재 나이  
ex. (2023) - (2008) = 15세

‘만 나이 통일법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? 왜 바꿨을까요?

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.

-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‘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’
-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그렇다면

**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· 누나 · 언니 · 오빠라고 불러야 할까요?**



**아니에요.**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어요.

우리 사회에 ‘만 나이’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‘만 나이’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. 나이를 답할 때, 생일 초를 꽃을 때,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만 나이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.

2023. 4. 10.

**시 흥 도 원 초 등 학 교 장**